

차인표



“좋은 드라마로 국민 시름 덜어주고 싶어”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서 코믹연기로 활력소 시청률 30% 주말에도 견제 “책임감 느낀다” 5차 촛불집회 참여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시청률 30%를 넘나드는 KBS 2TV 주말극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반전과 발견의 재미를 안겨주고 있는 배우 차인표(49·사진)를 만났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광화문 촛불집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드라마만 논할 수는 없었다. “조용히 행동으로만 말하고자 했을 그를 자칫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차인표는 최근 경기도 파주 광고 촬영현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토요일에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조용히 나갔다 오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그리고 그 말을 실천으로 옮겼고, 많은 이들에게 목격됐다. 2시간 동안 가진 인터뷰에서 차인표는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때마다 홀로 광화문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심경을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요즘처럼 주말 촛불집회가 이어질 때는 시청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은 견제 आए. 이에 대해 차인표는 “나 역시 시청률이 떨어질 줄 알았다”고 입을 열었다. “뉴스에 한 사람 얼굴만 계속 나오고 그 뉴스에 관심이 쏠린 이때, 당연히 드라마에 관심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잠 시라도 쉬고 싶은 거겠죠. 나라가 이 꼴인데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싶다가도, 시청률이 높은 것을 보면 주말에 다만 한 시간 만이라도 시청자들의 시름을 덜어주자는 책임감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키며 좋은 드라마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하는 거구나 느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심정은 “국민이 이렇게 소리 높여 한마음으로 외치는데 변화가 없으니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며 “비정상적 지면 안 된다. 함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드라마에서는 배삼도·복선녀 부부를 연기하는 차인표와 라미란의 궁궐이 참신하고 코믹해 극의 핵심적인 활력소가 되고 있다. 특히 한동안 재벌, 정치인, 의사 등에 치중했던 차인표가 오랜만에 코미디로 돌아선 것이 흥미롭게 다가오고 있다. 차인표는 “내가 생각하는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사이에 굉장한 큰 간극이 있구나 새삼 느꼈다”며 “나는 원래 배삼도 같다.(웃음) 배삼도는 내 나이 또래 남자 배우가 맡을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인 것 같다”고 밝혔다. 라미란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응답하라 1988”의 라미란씨 부분을 꼭 찾아서 봤는데 연기를 정말 잘하더라”며 “라미란씨는 자기 기사의 맛글을 다 본단데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인표는 현재 기러기 아빠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2년 더 기러기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 같다. 2014년 3남매를 데리고 미국 유학을 떠난 그의 부인 신애라(47)가 석사에 그치지 않고 박사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신애라는 현재 캘리포니아 허츠 유니버시티에서 기독교 교육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2년 예정으로 석사 과정만 밟기로 하고 떠났는데, 이미 석사는 끝났고 다시 박사과정에 돌입했어요. 내가 아직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 다행이죠. 공

부하면서 애 셋도 돌보느라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늘 에너지가 넘쳐요.” 차인표는 “부모를 잃고 갈 곳이 없는 한인 청소년을 한인들이 맡아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며 “미국에 한인 교회와 한인 모임이 많은데 아내가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부모 잃은 한인 아이들은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소개했다. 1995년 결혼한 차인표-신애라 부부는 슬하에 아들 정민(18)을 낳은 뒤, 2005년과 2008년 두 딸 예은(11)과 예진(8)을 입양해 키우고 있다. 기러기 아빠 생활이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2013년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서 어머니가 많이 상심하셨는데, 기러기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다”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머니랑 함께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같이 지내는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고 심정을 밝혔다. 차인표는 연기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생각하고 있다. “제게 연기를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번곡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창작입니다. 한동안 안 썼더니 어렵기도 하지만, 지금껏 남이 써준 대본으로 연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예요. 드라마 대본이든, 영화 시나리오든 직접 써보고 싶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배우에서 창작의 길로 접어들어서 앞으로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 연기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돈은 그동안 과분하리만치 벌었다고 생각해요. 돈은 후배들 밟아라도 살만하게만 있으면 돼요.”



2NE1 해체 ... 솔로활동 매진

YG엔터테인먼트가 그룹 투애니원(2NE1)의 해체를 공식 발표했다. YG는 “지난 5월 투애니원의 전속 계약이 만료됐고, 공민지가 함께 할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나머지 멤버들과 오랜 상의 끝에 2NE1의 공식 해체를 결정하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어 “투애니원은 지난 7년간 YG를 대표하는 걸그룹이었기에, YG 역시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다만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있다고 판단해 기약 없는 투애니원 활동을 기대하기보다는 멤버들의 솔로 활동에 매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G는 또 “지난 5월 이후 씨엘(CL)과 산다라박의 솔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아쉽게

도 박봄과의 재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재계약을 한 달여 앞두고 공민지는 투애니원을 떠나기로 해 항간에 투애니원 ‘해체설’이 떠돌기도 했다. 당시 양현석 YG 대표는 ‘해체설’을 일축하며 투애니원이 3인조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YG는 끝내 투애니원 해체를 선언했다. 투애니원을 떠난 공민지는 뮤직위크스에 새 동거를 틀었다. 씨엘은 미국에서 솔로로 활동하고 있으며 산다라박은 현재 필리핀의 오디션 프로그램 ‘피노이 보이밴드 슈퍼스타’(Pinoy Boyband Superstar)의 심사위원으로 활약 중이다. /연합뉴스

유해진·현빈 유쾌한 공조

영화 ‘공조’ 내년 1월 개봉



류해진 현빈

한류스타 현빈과 ‘럭키’로 흥행배우로 떠오른 유해진이 주연한 영화 ‘공조’가 내년 1월 개봉한다. 25일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공조’는 남한으로 숨어든 북한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남북이 처음으로 공조수사를 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현빈은 극비리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 출신 형사 립철형 역을 맡아 ‘역린’(2014)

이후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유해진은 남북공조수사에 투입된 생계형 납한 형사 강진태로 출연해 특유의 너스레와 반전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윤제균 감독이 이끄는 JK필름이 4년간 준비한 영화로, ‘타벌’을 연출한 김성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Table with 4 columns: Time, Program Name, Time, Program Name. Lists EBS1 programs including news, education, and entertainmen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8일(음 10월 29일 甲寅). Daily horoscope section with zodiac signs and corresponding advice.